



심사위원과 최우수작 당선자로서의 만남 이후 10년간 이어진 희귀한 友.情.



“시상식장에서 완이를 보았는데 눈동자가 아주 맑고 또렷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완이의 수기를 믿게 되었죠. 그러다가 춘천 완이네 집에 찾아가었어요. 정말 완이의 손으로 쓴 수기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음의 빔을 떨어내고 싶었죠.”

“.....선생님이 만드는 책들을 저는 참 좋아해요. 외국에서 많이 팔린 책을 재빠르게 번역해서 내는 책들과 선생님이 만드는 책과는 다르거든요. 늘 옆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을 많이 내시는데, 출판인으로서의 그런 엄격한 자세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형난옥 현암사 대표와 이완 씨를 만나기로 한 날, 기자는 조금 일찍 약속 장소인 현암사 북카페에 도착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완 씨를 기다리는 동안 형난옥 대표는 '옥상에 꽃씨를 심었는데 지금 꽃망울들이 터졌다' 고 말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성을 들여 만든 책이 곧 나온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20여 분 지났을 때 이완 씨가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뜻밖에도 카네이션으로 꾸민 꽃바구니가 들려 있다. 그는 선뜻 꽃바구니를 형난옥 씨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옛그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이 꽃받으세요.”

형난옥 대표는 밝은 웃음으로 그 꽃바구니를 받아 품에 안는다.

기자는 두 사람이 연출하는 첫 장면부터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현암사 대표 형난옥 씨와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2학년 이완 씨. 나이 차만 해도 20년이 넘는 이들은 어떤 인연으로 오늘까지 만남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일까? 그 소중한 인연은 이완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처(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된 것은 1994년 5월의 일이다)에서는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수기 공모를 실시했다. 환경정책 책임자가 차관급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환경과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할 때였다. 그때 형난옥 대표(당시 주간)는 수기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응모된 수십 편의 수기들을 심사하게 된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인사는 환경전문가·소설가·신문기자 등을 포함해 모두 네 명. 이들이 응모된 수기를 놓고 장시간의 심사 끝에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것은 《올챙이 때문에 알게 된 합성세제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수기였다.

“아주 잘 쓴 수기였어요. 문장도 정확했고 수기로서 꾸밈이나 과장이 느껴지지 않았죠. 심사위원들은 별 이견 없이 그 수기를 최우수작으로 내정해 놓았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수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 쓴 거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수기 응모자가 초등

학교 3학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심사위원들과 주최 측은 아주 난감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빼어난 수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 썼다니. 심사위원들은 재차 심사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3학년의 수기는 그 어떤 수기보다도 훌륭한 수기였지만 응모자라고 밝힌 초등학교생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수기의 내용이 꾸며낸 것인지 확인할 길이 묘연했다. 고심 끝에 심사위원들은 주최측과의 협의, 따로 최우수작을 선정하고 초등학교생이 쓴 수기에는 장려상을 안겨주었다. 바로 그 수기를 쓴 사람이 이완 씨였다.

“저는 그 수기가 사실을 꾸밈없이 그대로 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글쓴이가 초등학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수작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 참 안타까웠죠. 그때 마음의 빔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완 씨는 그 수기의 소재가 되었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 수기는 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거였어요. 강원대사대부고에서 키우던 올챙이를 당시 일반인들에게 배양했는데 저도 몇 마리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어항에 넣고 애지중지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욕조에 합성세제를 틀고 이불 빨래를 한 것을 모르고 저는 욕조에 차 있던 물을 올챙이 어항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올챙이에게 허물 같은 것이 생기더니 병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합성세제가 얼마나 환경을 해치는지를 깨달았어요. 마침 환경처에서 환경수기를 공모한다고 하길래 그 체험을 수기로 써서 응모했던 거죠.”

형난옥 대표는 초등학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수상을 받지 못한 이완이라는 아이에게 못내 미안했던지 완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에 이른다. 그만큼 당시 형 대표는 그 수기가 보여준 진실성에 마음이 끌렸다고.

“시상식장에서 완이를 보았는데 눈동자가 아주 맑고 또렷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완이의 수기를 믿게 되었죠. 그러다가 춘천 완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정말 원이의 손으로 쓴 수기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음의 빔을 덜어내고 싶었죠. 그때 원이 어머니께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원이가 평소 습작했던 공책 한 권을 던지시 내미시더군요. 그 공책에는 원이가 써놓은 온갖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환경 수기에 응모했던 수기보다 훨씬 잘 쓴 글들이 공책 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원이가 진실하면서도 재주가 많은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지요.”

“저는 그날 집 앞에서 휴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람케 도과제를 던져주시면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어요. 병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좀 망설여 지기는 했지만 일요일과 방학을 이용해서 글을 쓰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결과 나온 책이 바로 《뒤틀린 이렇지의 하소연》이라는 책이다. ‘뒤틀린’은 원이네 동네인 후평동의 옛이름이고 ‘이렇지’는 ‘지렁이’의 글자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열두 살 소년의 지구 살리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이 책은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초등학교 이완의 풋풋한 생각들이 나이답지 않은 정갈하면서도 예리한 문장에 담겨 있다. 1996년에 나온 이 책은 현재 일러스트를 곁들여 새로운 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완은 이 책으로 UN이 전 세계 환경 중요성을 깨우친 청소년들에게 수여하는 ‘UN글로벌500’ 상을 받기도 한다.

“출판사의 기획자로서 저는 원이를 미래의 필자로 생각했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원이는 타고난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고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가 일방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원이에게 생각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을 던져주었어요.”

“형난옥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늘 자연과 삶과 문화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시고 나래해지지 않도록 깨우쳐주시거든요. 그리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섭

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책도 권해 주세요. 만약 선생님의 그 깨우침, 수많은 조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형난옥 대표는 이완 씨 외에도 생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한 학생을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인재로 자라게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매니저 같은 역할이죠.(웃음) 저는 교육의 책임이 학교에만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도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역할이지만 원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만족해요.”

“형난옥 선생님은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만드는 책들을 저는 참 좋아해요. 외국에서 많이 팔린 책을 재빠르게 번역해서 내는 책들과 선생님이 만드는 책과는 다르거든요. 늘 옆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을 많이 내시는데, 출판인으로서의 그런 엄격한 자세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두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서로 연락해서 만난다고 한다. 이완 씨가 논문을 써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 역시 형 대표다. 가볍게 생각하면 사소한 듯 보이는 인연의 끈을 소중하게 감아올린 이들은 지금도 서로의 존재를 소중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서로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마다 스승의 날에 이완 씨가 형난옥 대표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 우정의 가장 극적인 징표인 셈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